

美, 이라크 공격의 숨은 배경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은 중간선거의 승리로 순풍을 맞게 되었다. 미국 공화당이 11월 5일 실시된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을 모두 확보, 양원을 장악했다.

글 · 홍성민 | 중동경제연구소장

이라크 공격의 명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은 중간선거의 승리로 순풍을 맞게 되었다. 미국 공화당이 11월 5일 실시된 상하원 중간선거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을 모두 확보, 양원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부시 미대통령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고 오는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더욱 밝게 해주고 있다. 중간선거 승리의 기세를 장악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겨냥한 대 테러전쟁 확산 및 대 북 강경정책 등 보수우익 강성의 '부시 외교' 기조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이 11월 6일 UN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대이라크 결의안 최종 수정안은 비록 러시아와 프랑스가 반대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FRB는 곧바로 0.5%의 파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고 이라크와의 전쟁시 우려되는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조짐도 보인다. 아울러 방산업체들의 생산활동 증대는 미국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대내외적으로 힘을 얻게 된 부시행정부는 이제 차분히 공격시점을 정하면서 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이라크를 '악(惡)의 축(軸)' 3개국 가운데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다. 금년초 부시 행정부가 '악의 축' 국가를 선포했을 때, 세계의 모든 여론은 왜? 이들 세나라가 '악의 축' 범주에 들어가야만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던졌다. 그 가운데서도 빈 라덴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한 이라크에 대해 최우선 공격 목표를 두는 점에 대해서 세계의 이목은 집중이 됐다. 뉴욕타

미국이 아프간에 관심을 갖는 주된 원인은 아프간이 가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에너지자원이 각국간 입장 선진국들의 중앙아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수송의 통로인 아프간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임즈는 그 이유를 “첫째로 사담 후세인(Hussein) 이라크 대통령이 이웃 국가들에 대해 가진 외교·군사적 야망과, 둘째로 이라크군 화력에 대한 미군의 낮은 평가, 두 가지로 꼽았다. 다시 말하면 부시 행정부는 적대적 성향의 이라크 정부가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 더 더욱 자신감을 갖고 걸프 지역의 세력균형을 깰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위협을 신속하게 압도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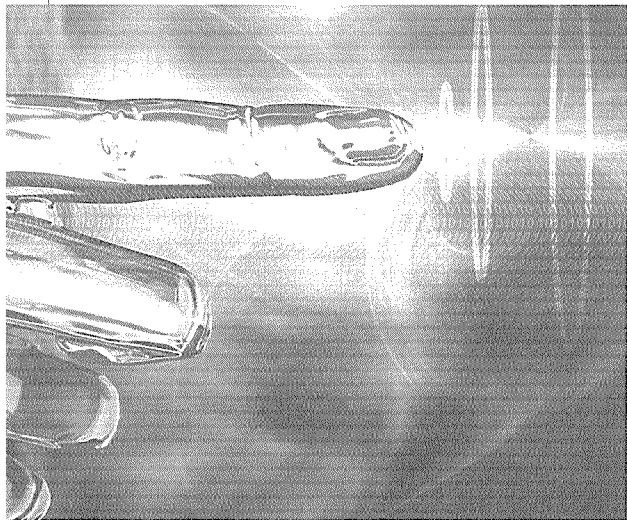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의도는 첫째로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어 왔던 이라크가 이들 무기로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9·11 테러 배후인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에 무기를 넘겨줘 간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의 9·11 테러를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1997년 이후 유엔 무기사찰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상황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군수산업을 유지 내지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같은 미국의 초대형 군수업체들은 1998년 이후 규모면에서 매년 50~100% 성장해 왔고, 9·11 테러 이후 성장 속도는 더 빨라졌다. 미국 노동인구의 2%(220여만명)를 고용하고 있는 미 군수산업은 미 경제활성화, 고용안정의 부수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은 세계 제2위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이라크 후세인 제거는 중동 석유자원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최후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숨은 의도는 OPEC의 영향력에 커다란 힘을 행사하고 있는 이라크를 무력화시킴으로서 중동의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라크가 9·11 테러를 주도

하였다고 믿고 있는 알-카에다(Al-Qaeda)를 지원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명백해진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1년을 넘겼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9·11 테러의 배후 세력으로 추정되는 알-카에다나 빈 라덴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전선(戰線)을 중동으로 옮기려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석유전쟁으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했다. “미국편과 테러리스트편을 양자택일하라. 문명의 편과 야만과 악(惡)의 편을 양자택일하라. 그러나 각오하라.” 이것이 부시 독트린이다. 곧이어 미국은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걸프전(The Gulf War)이 석유전쟁이었듯이 아프간에서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도 석유전쟁의 일환이었다. 금년 1월 22~23일 도쿄에서 개최된 아프간 경제재건을 위한 국제회의의 내용을 보면 그 점은 더욱 더 명백해진다. UN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150억달러가 소요되는 아프간 재건 사업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다.

미국이 아프간에 관심을 갖는 주된 원인은 아프간이 가진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위치와 에너지자원이 각국간 입장 선진국들의 중앙아시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수송의 통로인 아프간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서방권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그리고 당사자인 아프가니스탄 등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최소한 돈 문제에서만큼은 위세에 눌리고 있는 양상이다.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연안국가들, 즉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원유 및 가스의 파이프 라인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송유관과 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극동아시아 송유관 및 이란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이 있고, 나머지는 투르크메니스탄 남부-터키-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 라인 등이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파이프 라인이 탈레반에 의해 방해받고 있었기에 빈 라덴보다는 아프가니스탄 정복에 더 큰 목표가 있었던 점이 분명하다.

1980년대에 유전이 발견되어 세계원유의 20%, 천연가스 13%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카스피해지역의 원유는 냉전시대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서구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공산주의 몰락과 그에 따른 개발로 대량의 유전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계각국의 석유자원 쟁탈의

무대가 되고 있는 지역이 중앙아시아이다. 미-일로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정복으로 동아시아에서 원유의 수송로를 확보한 셈이 되었고, OPEC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아프간사태의 확전은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이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중동으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의 접경 국가들과의 관계를 수립하는데 외교정책적 관심이 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석유 안보적 관심과 일치하는 것이다. 카스피해 원유는 걸프만 원유에 대한 수요를 현저히 삭감시킬 수 있으므로 중기(中期)에 있어서 중동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증대되는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200만b/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석유를 이란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수출할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다량의 카스피해 원유가 아시아로 향하게 될 것이다. 만일 카스피해 원유가 러시아 극동지역 보다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비단길'을 선호하게 된다면, 중앙아시아에서의 원유 수송로 확보를 위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비단길'의 주요한 장애는 다국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테러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그 충구를 석유의 보고인 중동의 이라크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 공격의 의도는 석유장악

미국이 충구를 중동으로 돌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아프간 장악으로 동아시아에서 석유자원 지배의

이라크의 원유생산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중단되었고, 1996년 수출이 재개된 이후에도 6개월마다 UN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였다. 수출물량도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140만b/d를 생산하고 있다.

들을 구축하였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상만 남겨 놓게 되었다. 더욱이 미-러시아는 현재 석유자원에 관한 협상이 착착 진행중에 있으며, 중국의 석유산업에도 많은 인력이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 골치거리로 남은 국가는 OPEC 회원국인 중동의 이라크와 이란의 두 국가들이다. 만일 미국이 이들 두 국가를 장악하게 될 경우, 리비아를 제외한 대다수 OPEC 회원국들은 미국의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안정한 원유 공급원이 바로 중동의 원유이다. 실제로 미국이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지역은 북미와 남미 지역이다. 미국의 원유수입은 전체의 50% 이상을 캐나다,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남미와 북미 지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그밖에 25.1%는 중동 지역, 16.6%는 아프리카 지역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으로부터도 0.1%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원유수입에 관한 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은 미국의 에너지원 확보에만 국한시켜 볼 때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집착은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진다.

이라크의 원유생산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중단되었고, 1996년 수출이 재개된 이후에도 6개월마다 UN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였다. 수출물량도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절반수준도 못 미치는 140만b/d를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석유소비의 2%도 안되는 물량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원유는 새로운 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과 1991년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조치에 따라 생산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었고, 유정(油井)도 많이 파괴되어 신규투자가 이루어져야할 상황이다. 전문가

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라크와의 전쟁이 단기적으로 성공할 경우) 이라크는 1년반 이내에 원유의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일량 100만 배럴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는 OPEC내에서도 이란 리비아와 함께 고유가를 주창하는 국가이기에, 이라크를 함몰시킬 경우 국제 석유시장에서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배경도 깔려있다. 이렇게 될 경우 OPEC의 10개 회원국들은 선택의 폭이 거의 없어지기에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1970년대 국유화 이전까지 이라크 석유산업을 지배했으며, 특히 영국의 BP는 이라크석유(IP) 주식의 약 1/4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라크는 이란-이라크전쟁과 1991년 걸프전쟁,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경제제재로 인해 손상된 석유부문 재건을 위해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로 선회,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프랑스,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후세인 이후' 들어설 이라크 차기정부가 현 정부와 체결한 석유관련 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있다. 특히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루코일社は 1997년 향후 23년간 35억 달러에 달하는 이라크 서부 쿠르나 유전개발 계획에 서명, 이라크내 최대 지분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의 토탈피나엘프도 약 200억~3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마이눈 유전 탐사협상을 진행중이다. 중국석유공사 역시 이라크 정부와 걸프전 당시 상당한 타격을 입은 루마일라 유전지대 일대의 개발계획에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프랑스, 러시아 및 중국이 UN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제동을 거는 숨은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의도는 국내경기의 활성화라는 대명제하에 중동의 석유자원을 장악하려는 숨은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